우리 이주엄마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

왕지연/한국이주여성연합회 중앙회장

저는 지난 2002년에 한국어 배우러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벌써 19년이나 됐네요.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가 붐을 이루던 시기였어요,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남편을 만났고 곧바로 2003년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06년에 두 아이를 낳으면서 평범한 4인가족의 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남들 못지않게 잘 살고있습니다. 유학생으로 지내다가 결혼하니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고 결혼이주하신 분들보다 사회 적응이 조금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드라마로만 한국을 보다가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낯선 땅에 오자마자 한 가족의 며느리이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한국사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바로 출산해 엄마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도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오게 되면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생활 초기에 에피소드를 생각하면 지금은 웃음만 나옵니다. 특히 시부모님과의 대화가 그 당시에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경상도와 강원도 사투리가 섞인 말로 말씀하셔서 더더욱 못 알아들었어요, 눈치 주지 않으시는데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문화를 좀 접촉한 상태인데도 그런데 초기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더욱이 친정집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 생활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아이가 있어서, 아이의 엄마니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호박고구마를 사오라는데 제가 시장가서 호박과 고구마를 사왔어요. 시부모님이 웃으면서 넘어가주시네요. 매운 음식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잘 먹어요.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거 후회는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만족하면서 살아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 나를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섭니다.

저는 2009년에 한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가자로서 참여했다가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일을 하면서 여러 나라 분들 알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우리한테 친정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한국이주여성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문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신국의 문화를 한국사회에 알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이리저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문화 민속 공연, 체험, 음식 등 지역축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익도 창출하면서 일자리도 늘리면서 다문화인들이 운영하는 전국 제1호 다문회사회적기업을 만들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연합회에서 다양한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바둑, 합창, 바이올린 교습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자녀들의 진로 및 취미를 중심으로 통·번역 동아리, 요리 동아리, 댄스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 엄마들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주 엄마들에게는 권익 신장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부부 캠프, 아이 양육지도, 고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이 같이 만나는 평생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단체 운영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감당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회원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위안을 받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고맙다, 너무 좋다' 라는 회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때였습니다. 그럴때마다 여기까지 견디고 오길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연합회가 없으면 회원들한테 행복한 순간이 줄어 들수도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2019년 익산시상 사건이 우리에게는 저리고 아픈 첫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이주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며 사회에 등장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편견과 차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 참았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저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장 사건은 우리 이주

여성들의 가장 아픈 곳을 예리한 칼로 난도질 했습니다. 익산시장이 우리 이주엄마들을 잘못 건드렸어요. 한국어에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금쪽보다 더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엄마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는 익산시장 발언을 늦게 알았어요. 누가 익산시장 관련기사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열어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들은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그대로 두게 되면 앞으로 우리아이들은 여지없이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 차별과 편견속으로 버려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가슴을 조여 왔습니다. 우리 이민 1세의 고통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십십일반 모금에 들어갔고 곧바로 익산으로 내려 갔습니다.

익산시장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참 많았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정의로운 이주여성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과 용기가 넘실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못 할 게 없다는 간절하고 강열한 외침이 광장에 메아리쳤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주엄마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SNS, 전화 등을 통하여 현장을 응원했습니다.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국가고 이른바 민주도가 높은 선진국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그리고 민주적인 국민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떼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 따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차별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절대 참지 않겠습니다.

이주엄마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다문화 정책을 만들 때도, 우리의 권익이 위협을 받을 때도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만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지키고 우리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